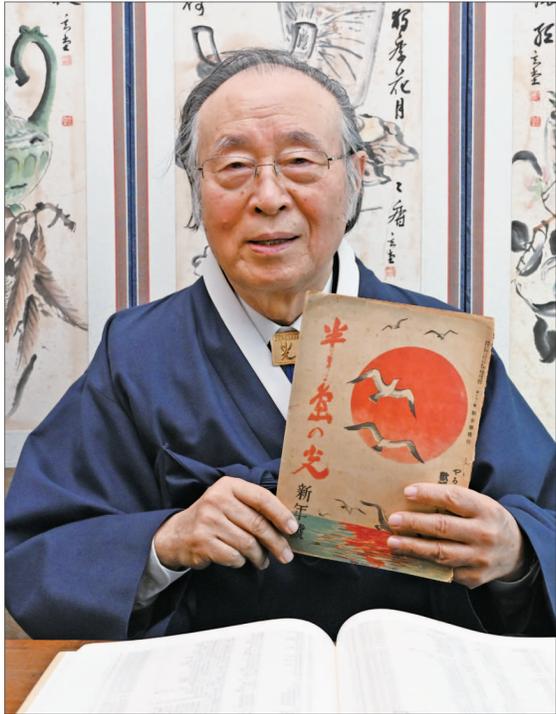


“장덕수, 태평양전쟁 성전 미화...학병 지원 독려”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씨가 9일 1944년 1월 발간된 잡지 '반도의 빛(半島光)'에 실린 장덕수의 기고문 '출전하는 반도인 학도에게'를 공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심정섭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 친일 기고문 공개 한국신민 의무 등 강조...해방 전후 행적 재평가 요구↑

일제강점기 말기 태평양전쟁을 '성전(聖戰)'으로 미화하며 조선 청년들의 학병 지원을 독려했던 장덕수(1895~1947)의 친일 기고문이 공개됐다. 광복 이후 정치권에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의 해방 전후 행적 전반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 사백(83·광주 북구)은 1944년 1월 발간된 잡지 '반도의 빛(半島光)'에 실린 장덕수의 기고문 '출전하는 반도인 학도에게'를 공개했다.

조선 황국신민회를 목적으로 조선총독부 후원 하에 운영된 반도의 빛(일제 말기 최대 잡지)에는 당시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장덕수가 3쪽 분량의 기고문을 통해 태평양전쟁을 “인류 역사의 신기원을 여는 전쟁”으로 규정하며 참전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제군이아말로 세계사 창조에 성스러운 역군”이라며 현충을 위해 죽는 것이 황국신민의 의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장덕수는 1940년 국민총력 조선연맹

참사 겸 후생위원,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등을 맡아 서울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병 격려 연설을 했고, 1943년에는 이광수와 함께 학병 지원을 선전했다.

같은 해 11월22일자 매일신보에 게재된 '학도열의에 감사'에서는 일제의 특별 지원병제 실시를 찬양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삼천리', '동양지광', '신시대', '조광' 등 여러 매체에 글을 발표하며 황국신민화 정책을 옹호한 것으로 전해진다.

1895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난 장덕수는 1909년 재령 보강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김구 선생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1916년 일본 와세다대 정경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미국 오리건대와 칼리포니아대에서 수학해 1936년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19년 12월에는 여운형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 요인을 면담하고 도쿄 제국호텔 연설에서 통역을 맡았다. 1921년 상하이에서 열린 고려공산당 창립대회에서 중앙위원 겸 국내 간부로 선정되는 등 사회주의 계열 활동 경력도 있다. 그러나 일제 말기에는 적극적인 친일

선전 활동에 나섰고, 광복 이후에는 한국민주당 정치부장으로 활동하며 미군정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조경환은 생전 장덕수에 대해 “해방 공간에서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1947년 2월 민족진영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한국독립당(조경환)·조선국민단(안재홍)·신한민족당(권태석)의 합당 추진이 무산된 배경에도 그의 반대가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장덕수는 1947년 12월2일 서울 제기동 자택에서 암살됐다. 수사 과정에서 한국독립당 인사가 배후로 지목되면서 정국은 큰 파장을 맞았고, 김구 선생은 법정 증인으로 소환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김구 선생은 법정에서 암살 배후 의혹을 부인한 뒤 효창공원을 찾아 3의사 묘역(윤봉길·이봉창·백정기)과 임정 묘역에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섭 명예관장은 “장덕수는 항일과 사회주의, 친일과 친미를 넘나든 인물로 평가된다”며 “특히 일제 말기 학병 지원을 선동한 자료가 확인된 이상, 그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일 자료의 지속적 발굴과 공개를 통해 해방 전후 혼란기 인물들에 대한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6:51	달림	00:27
맑음	18:36	달림	10:07



광주	☀️	-1~11
목포	☀️	0~8
여수	☀️	1~11
순천	☀️	-1~12
구례	☀️	-2~12
광주	☀️	-3~10
신도	☀️	-1~11
흑산도	☀️	2~7
진남	☀️	-3~11
진도	☀️	1~8

목포	미물(구)	06:14 / 17:56
	샘물(저)	11:17 / 23:17
여수	미물(구)	00:35 / 12:26
	샘물(저)	06:37 / 18:31

광주 노동자들 상담 1위는 '임금'

광주노동권익센터 집계...퇴직금 최대

광주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 내역 1위는 임금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진행된 노동 상담 건수와 상담자는 각각 1335회, 1055명으로 집계됐다.

상담 분야별로 보면, 임금(중복 가능)이 796회(35%)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276회(12.14%), 기타 244회(10.7%), 징계·해고 206회(9.06%), 고용보험 172회(7.56%), 직장 내 괴롭힘 163회(7.17%) 등의 순이었다.

임금 상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퇴직금(178회)이 가장 많았고, 기타(136회), 임금체불(133회), 주휴수당(107회), 연차수당(89회), 시간외 수당(88회), 최저임금(65회) 등의 순이었다.

상담 형태는 전화 900회(67.42%), 온라인(홈페이지·오픈채팅) 141회(10.56%), 출장 138회(10.34%), 센터 내방 상담 83회(6.22%), 금남로 분소 내방 상담 73회(5.47%)로 집계됐다.

임금별로는 숙박·음식점이 202회(1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189회(16.5%), 보건·사회 복지 서비스 126회(11.0%), 사업시설관리 서비스 118회(10.3%), 도소매업 82회(7.2%), 공공행정·사회보장 행정 77회(6.7%)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236건(25.3%), 100인 이상 230회(24.65%), 10~30인 미만 173회(18.54%), 5~10인 미만 163회(17.47%), 30~100인 미만 131회(14.04%)를 보였다.

센터는 접수된 상담에 대한 조치(중복 가능)로 안내·설명 1327회(84.58%), 자료검토 171회(10.9%), 서면·의견서 검토 56회(3.56%)를 제공했고, 일부 연소자 및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직접 조정 및 사건을 대리하는 방법으로 15건(0.96%)을 지원했다.

광주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 제공을, 사업주의 관리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안전점검의 날 예방 캠페인’ 9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 광장에서 열린 ‘안전점검의 날 예방 캠페인’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고윤순 광주주시안전관리부서장 연합회장 및 봉사자들이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경찰-금감원, 피싱범죄 예방 ‘맞손’

금용기관 567곳 ATM 앞 정지선 부착

광주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이 보이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ATM 앞 바다에 ‘보이스피싱 정지선’을 설치했다.

광주경찰청은 지역 금융기관 567곳의 ATM 앞 바다에 보이오피싱 범행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를 담은 ‘보이스피싱 정지선’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이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ATM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광주경찰과

금융감독원은 ATM 앞 바다에 시인성이 높은 교통안전 표시 형태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카드배송’, ‘법원등기’,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 ‘유급대환대출’, ‘휴대전화 개통’ 등 보이오피싱 범행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 키워드를 표시했다.

임영진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 키워드를 표시했다. 임영진 기자

경찰 단속에 타인 면허 제시

만년필 ○...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며 경찰 단속을 피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중석 재판장은 공문서부정행사, 특수절도,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월이 선고된 A씨(24)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광주 북구와 남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불법 부착 장치 사용 등으로 세 차례 단속돼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제시한 혐의로 기소.

또 A씨는 2023년 10월6일 오전 2시40분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 배달통에서 현금과 조끼 등 약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같은해 12월 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육군훈련소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불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상권 활성화 ‘마중물’

광주 동구가 추진중인 ‘충장상권활성화 르네상스사업’이 지역 상권의 체질 개선으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9일 동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인 ‘상권활성화 르네상스사업(2022년~)’은 충장 라온 페스타, K-POP 경연대회, 공유공간 운영, 홍콩 골목(핵점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충장 라온페스타’는 4년간 총 28회 진행됐으며, 누적 관람객 12만9000여명이 참여해 총 21억2000여만원의 매출 기여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공실 건물을 임대해 조성한 공유공간

‘충장의 집’과 ‘K-POP 공유카페’는 최근 2년간 누적 방문객 2만5000여명, 3억 5000여만원의 매출 기여 효과를 보였다.

동구는 지난해 9~10월 충장로의 빈 점포를 활용해 K-푸드 대행사로 알려진 불닭 캐릭터 ‘호치(HOCHI)’를 활용한 팝업 스토어를 열며 굿즈 판매, 체험형 부스를 선보였다. 팝업스토어가 문을 연 지 한 달 간 1만4000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홍콩 골목은 개장 3개월만에 누적 방문객 5만여명과 매출액 10억원을 달성하는 등 야간상권 부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던 충장로 안길

일대 점포를 리모델링해 선술집과 포차, 위스키 바, 사브사브 전문점 등을 집적시킨 이 공간은 새로운 소비 거점으로 떠올랐다. 홍콩이라는 이색적인 특징 덕분에 오픈 직후부터 SNS를 뜨겁게 달궜고, MZ세대의 포토존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 통행 중심이던 충장로에 체류형 소비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동구와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은 홍콩골목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신규 사업 대상지를 모색하고 있다.

사업 내용도 조정됐다. 핵점포 육성 예산은 기존 17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홍콩골목 조성·공유공간 운영으로 매출 확장 가속 동구, 사업 구역 확대·차 없는거리 연계 사업 추진



광주 동구가 추진중인 ‘충장상권활성화 르네상스사업’이 상권 체질 개선과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방문객들이 충장로에서 열린 플라마켓에서 상품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제공=광주 동구

마지막 사업년도인 올해는 지속성 확보를 위해 라온페스타를 금남로 차없는거리 행사(매일 첫째 주 토요일)와 연계할 계획이며, 골목여행 프로그램은 광주 아트패스(Artpass)와 연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간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충장로만의 정체성을 강화에 나선다.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충장마을백화점’ 사업 대상지도 충장로 5가에서 4가까지 넓힌다. 광주극장과 인근 로컬 브랜드를 연계한 식음료(F&B) 입점도 유도해 충장로만의 정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 관계자는 “충장상권 상권활성화 르네상스사업이 올해로 끝난다”며 “사업 이후 충장상권이 광주 대표 상권을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